

“타인과 세상의 이면 보듬어 안았죠”

진도 출신 박현우 시인 시집 이효복 시인과 부부시인 활동 '떨어지는 것들은...' 펴내 내 자리에서 '타인의 고독' 이해

“부부가 함께 시를 쓴다는 것은 시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행운이지만 한편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행위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이해가 곧 행위가 아님 불편을 줄 수 있죠. 아무리 부부라도 생각의 이면은 존재하기 때문이지.”



박현우 시인

이쉬움이 남아 그동안 일상에서 새롭게 느낀 감정과 사유를 시로 담았다"고 전했다. 작품에서 얼핏엿보여지는 고독의 정서는 '사회적 고립감'이 아닌 '타인의 고독'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일한다. "내 생각의 자리에서 타인의, 세상의 이면 가까이 보듬어 표현하고자 했다"는 말에서 이번 작품집 지향점이 대략 가늠이 됐다. 임동학 시인은 박 시인의 작품에 드러워진 고독에 대해 "격리되거나 고립된 외톨이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물들의 본질에 이르면서 그 이웃이 되게 하는 본래적인 힘"으로 규정했다. 즉 "주어진 사회와 곁잡작용하면서 그것에 활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원형으로서 대사회적이고 현대적인 이른바 '의로운 고독'으로 보는 것이다. "...사계의 해조음처럼/ 번덕스런 시공을 살아 불 일이지만/ 물살 따라간 시간들 뒤돌아보면/ 절도(絶島)를 표류하던 절명의 고독들이/ 더러는

꺼어져 백사(白沙)가 되고/ 갯갯들 사늑한 보금 자리 되는/ 모난 돌 하나 찾기 힘든 구계등 바리/ 모나게 살고 싶던 날들의 신념 꺼내 보는가// 오는 길 정 맞은 돌 몇 주워/ 빈틈 많은 생의 구멍을 때워 볼까/ 하는."

"모난 돌'은 이번 시집을 관통하는 고독의 이면을 투사한 작품이다. 사실 본래의 자신 모습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자는 단절이 아닌 본래의 본 모습과 대면하고자 하는 의지를 추구한다. 화자에게 '모난 돌'이 '빈틈 많은 생의 구멍'을 때울 수 있는 의미있는 존재로 다가오는 것은 그런 연유다. 역설적으로 그 '모난 돌'은 자신 외에 타자의 본래 모습에도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열린 시어'다.

혹자는 시를 쓰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 돌아보면 시를 쓰기 쉬운 시대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박 시인은 "시대를 엮는 표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의 시대를 담는 감성의 그릇은 천차만별"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시를 대하는 태도나 시적 변용의 순환이 반복되는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어두운 시대로 서정의 시대에도 속명처럼 내안의 신명을 뉘트리하는 자가 '시인' 아니던가요? 잡시의 침묵을 있을지라도 슬픈처럼 '정한 봄'의 시기(詩期)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그는 시를 쓰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시가 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하는 후배들에게는 "자기만족 이면 되는 것"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앞으로도 그는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시를 쓸 계획이다. "해가 갈수록 감성도 감정의 폭도 좁아지지만" 이 또한 편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내 고향 진도의 펄펄 뛰는 언어들로 고향의 심성을 담은 작품을 쓰고 싶어요. 고독하지만 의로운 역사 속에 담긴 주술 같은 시집 한 권은 꼭 남길 생각입니다"

한편 박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이사로 활동했으며 부부시화전을 개최(그림 홍성당 외 7인)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관광헬퍼와 '해설이 있는 광주 동구 여행'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22명 대상 전일빌딩245 등 순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재단)은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친구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광주 동구 여행' (사진)을 최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승진리더과정(5급) 교육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및 비움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전 일정에는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친구'가 함께했다. 지역 주민이 직접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총장축제, 광주 버스킹월드컵, 아트패스 팝업 스토어 등 53회에 걸쳐 국내·외 관광객 5400여 명을 만났다.

재단 문창현 대표이사는 "2023년 시작된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친구'가 2년 만에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관광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났다"며 "향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개할 인재 찾아요

국립광주박물관 27일까지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지난해 국립광주박물관에 참여한 14기 대학생 서포터즈.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와 사진, 영상에 소질이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오는 27일까지 '제15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신청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3월 7일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SNS 운영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이어야 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4월부터 12월까지 전시·교육·문화행사 취재 후 콘텐츠를 제작해 SNS 홍보 활동

을 펼친다. 또한 서포터즈는 답사, 역량 강화 교육 등 혜택을 받으며 활동비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서포터즈가 생산한 다양한 콘텐츠가 관람객들의 방문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번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은 물론 문화 관련 역량 강화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금석전각예술 여행 자술' 인스타에 집필

광주대 최준호 교수...40여 년간 금석전각 분야 연구 결과물

금석전각 분야 연구 결과물을 '여행'이라는 화두로 자술한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대부분 화집 자서전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스타 자술로 대신한 것은 새로운 도전으로 일한다.

광주대 호심미술관장 최준호(사진) 교수가 최근 '일목 최준호 금석전각예술 여행 자술'이라는 주제로 인스타에 집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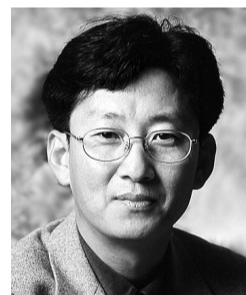
최 교수는 40여 년간 금석전각 분야를 연구하며 작업한 과정과 결과물을 인스타 자술로 남겼다.

최 교수의 이번 집필은 "국립대만사대에서 논문을 쓴 중국 서화가·전각가 제백석의 '백석노인 자

술' 영향을 받아 자술을 집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과물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눈다.

'연구자의 길'과 '정제작가의 길'이 그것으로 내용은 갑골문 풀이를 비롯해 고서화감정 소이부담(笑而不答) 사례, 금석전각 관련 논문 및 저서, 거대 방형 인장 완당예고와 추사 자각 인장 등 연구 결과물이다. 또한 저자가 새긴 인장과 가족장, 러시아로 간 금석·서화 작품, 50년 전 기억을 되살린 작품 등이 담겨 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금석전각 연구의 길을 걸으며 '한 그루 나무 서 있듯이'의 '일목(一木)'으로



살아왔으며 이제 '구름 한 점 지나가듯이'의 '일운(一云)'으로 살아 가려 한다"라며, "추사·다산·석파 관련 인장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길'과 금석전각 작가로서 '정제작가의 길'도 앞으로도 계속 걸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최 교수는 흥대 미대·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립대만사범대학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2013년 '추사, 명호처럼 살다'로 월북저작상 수상했으며 도립 전남국악미술관장을 거쳤다. 이후 광주대에서 정년 후 현재 호심미술관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